

경제 관련 용어 정리

멋쟁이 사자처럼 데이터 분석 4기 데이터톤 4팀

(박선우, 이동주, 장선희, 최혜은, 홍다영)

[경제 펀더멘털 Fundamentals]

: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
→ 경제의 **체력**이나 **기초 여건**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들

구분	대표 지표	해석 방향
☑ 성장력	경제성장률(GDP), 산업생산지수	안정적인 성장이 긍정적
💰 무역/외화흐름	경상수지, 무역수지, 외환보유액	흑자/보유액 많을수록 안정
📊 통화가치/물가	물가상승률(CPI), 금리	물가 안정 + 경제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금리 구조
🏢 노동시장	실업률, 고용률, 임금 상승률	고용 호조 = 경제 활력 긍정 신호
📉 재정건전성	정부 부채 비율, 재정수지	낮을수록 건전, 적자 심하면 악화
📄 신용도/위험도	CDS프리미엄, 국가신용등급	위험도 낮을수록 외자 유입에 유리

(두꺼운 글씨 → 프로젝트에 사용한 경제 지표)

1. 환율

(1) 종류 및 정의

-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(원화 기준)
 - 주요국 통화 1단위가 몇 원(~~₩~~)인지
 - 1 USD = 1,400원
-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(달러 기준)
 - 주요국 통화 1단위가 몇 달러(USD)인지
 - 1 JPY = 0.0072달러
-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
 - 1달러를 사기 위해 몇 원이 필요한지
 - **1 USD = 1,400원**

(2) 원/달러 환율

항목	내용
거래 비중	한국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(80% 이상)
환율 산정 방식	1. 직접 시장에서 결정 (자유 변동) 2. 관리 변동 환율 제도시스템 (한국은행의 시장 개입 가능성) 2022년 한국은행의 달러 매각 개입 -> (약 300억 달러 규모)
영향력	미국 기준금리, 국채금리, 고용·CPI 지표 등에 즉각 반응
정책 민감도	미국 금리 인상 → 달러 강세 → 원/달러 환율 상승 → 원화 약세 (원/달러 환율 상승)는 수출기업에 유리하나, 수입물가 상승과 외채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됨

- 한국의 **외화 부채 상황**, 수입 결제, 원자재 대금 대부분이 **달러 기준**
- 따라서 **환율 예측, 정책 대응, 금융위험관리**의 핵심 대상
- 원화 약세(원/달러 환율 상승)는 수출기업에 유리하나, 수입물가 상승과 외채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됨

2. 수출입 총액 + 무역 수지

(1) 수출 총액 (Total Exports)

: 한 나라가 **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번 외화 총액**

→ 보통 달러(USD) 기준, 데이터에서는 천 달러 단위 제공

→ 국제수지 측면에서 외화 유입의 주요 원천이며, 국가의 생산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

국가별 수출 총액

- 미국 (한국은행 API 데이터)
 - **한국 전체가 미국에 수출해서 번 외화 총액**
 - 202201: 8569920 → 8,569,920,000 USD (약 85억 7천만 달러)
→ 이를 X 1,400원 = 약 12조원
- 해석
 - 수출이 많을수록 → 외화 유입이 증가 → 환율 하락
(수출입이 환율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라는 식의 단정은 아님!)
 - 수출 구조 분석 시 산업별로도 나눠봐야 할 듯
→ 한국의 경우 반도체(2023년 전체 수출의 18.8%), 자동차(12.4%), 석유화학(7.9%)
이
주요 품목이며, 이 산업의 수출 증감이 전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

(2) 수입 총액 (Total Impor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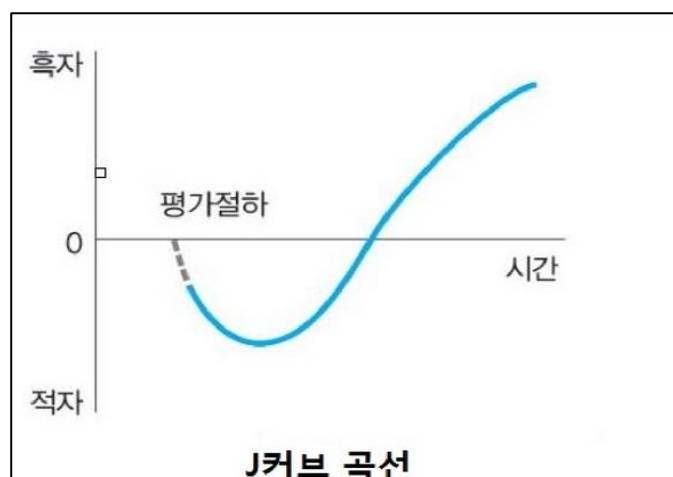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수입 총액

- 한 나라가 **외국으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총액**
→ 보통 달러(USD) 기준, 데이터에서는 천 달러 단위 제공
- 미국 (한국은행 API 데이터)
 - **한국 전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구입한 총액**
 - 202201: 7105625 → 7,105,625,000 USD (약 71억 5백만 달러)
 - → 이를 X 1,400원 = 약 9.95조원

- 해석
 - 수입이 많을수록 → 외화 유출이 증가 → 환율 상승 요인
 - 유가 상승 시 → 원유 수입액 증가 →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

(3) 무역 수지 (Trade Balance)

- 수출총액 - 수입총액 → 즉, 얼마나 많이 팔았고 얼마나 많이 샀는 지의 차액
- 미국 [한국은행 API 데이터]
 - 85억 - 71억 = 14억 6천만 달러 **흑자**
 - → 이를 X 1,400원 = 2조 500억원 **흑자**
 - 2022년 1월,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4.6억 달러(2조 원) 흑자를 기록함
- 해석
 - **흑자(+)** : 수출 > 수입 → **외화 유입** > 외화 유출
 - **적자(-)** : 수출 < 수입 → 외화 유입 < **외화 유출**
- 환율과의 관계
 - 무역수지 흑자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 - **J-Curve 이론** : 단기적으로 환율이 하락(자국통화 약세)해도 수입 가격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고, 시간이 지나 수출 증가가 반영되며 개선되는 현상
 - J-curve는 "단기 악화 → 장기 개선"의 무역수지 반응 곡선을 의미하며, 이는 가격탄력성 조건(Marshall-Lerner 조건) 충족 여부에 따라 성립됨



→ 2020년 원화 약세(1,250→1,450원) 사례에서 입증

1. 초기 6개월: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물량 조정 지연으로 무역적자 확대(-\$4.2억)

2. 12개월 후: 반도체 수출 23% 증가로 흑자 전환(+\$7.1억)

▪ **수출 탄력성:** 한국 수출의 가격탄력성 -0.7 (IMF, 2023)

○ 무역수지 적자 → 환율 상승 (원화 하락)

3. 외환보유액(Foreign Exchange Reserves)

중앙은행(한국은행)이 보유한 달러 등 외화 자산 총액

- 달러화 표시 자산 (미국 국채 등)
- SDR (IMF 특별인출권)
- 금 (Gold)
- 기타 외화표시 예금·증권 등이 포함됨

→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, 수입액 대비 3-6개월치 정도가 국제적 기준

(1) 외환보유액과 환율의 관계

1. ☒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→ 상대적으로, 환율 안정 효과

(외환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율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음. 중요한 건 보유액을 실제로 시장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가!)

-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:
 -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는 개입이 가능해짐
 - 시장에서 원화가 급격히 약세일 때 방어력 상승

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 요인

2. ☒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→ 시장 불안 → 환율 상승 가능성

- 외환보유액이 하락하면:
 - “환율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”는 신호로 받아들여짐
 -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원화를 더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함

→ 원화 약세(환율 상승) 요인

(2)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구성 항목

단위 : 천 달러

항목명	의미	환율 개입 가능성	해석 포인트
금	한국은행이 보유한 금(Gold)의 시가	낮음	안전자산, 유동성 낮음 → 단기 환율 방어에 부적합
특별인출권 (SDR)	IMF가 각국에 배분한 국제준비자산	제한적 (IMF 활용 필요)	유사시만 사용 가능
IMF포지션	IMF 출자지분 중 인출 가능한 몫	제한적	긴급 대응 가능성 있음
외환	가장 핵심! 외화예금, 미 국채, 외국채 등 → 즉시 활용 가능한 외환자산	매우 높음	실제 환율 개입 자금의 핵심

(3) 외환 (외환 자산)

- 실제 데이터
 - 202201: 436,836,167 (약 **4,368억 달러**)
 - → X 1,400원 = 611조 5,706억원
- 해석
 - 환율 개입력의 핵심, **중요 비중**

(4) 외환보유액 (합계)

- 실제 데이터
 - 202201: 461,526,656 (약 **4,615억 달러**)
 - → X 1,400원 = 646조 1,300억원
- 해석
 - 외환보유액 합계 (금 + 특별인출권 + IMF포지션 + 외환)

4. 금리(Interest Rate)

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의 비율

- 종류
 - 정책 금리
 - 시장 금리
 - 실질금리 (real interest rate)
 - **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**
 - 경제 주체가 체감하는 **실제 수익률**
 - $\text{실질금리} = \text{명목금리} - \text{물가상승률 (CPI)} \rightarrow \text{실제 구매력 기준 수익률}$
 - 실질금리는 돈을 맡겼을 때 얻는 진짜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.
은행에서 3.5% 이자를 준다고 해도, 물가가 2.5% 올랐다면 실제로는 1%만 더 살 수 있게 된 것이다.
마치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서 실제로는 비슷하게 사는 느낌과 같다.
 - 명목금리 (normal interest rate)
 - **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표면상의 금리**
 - 은행 예금 금리, 채권 금리 등도 대부분 명목금리
 - 물가상승률 (inflation rate)
 - 보통 소비자물가지수(CPI)로 측정
 -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.5% \rightarrow 물가 상승률 2.5%
 - 계산 : 명목금리(3.5%) - 물가상승률(2.5%) = 실질금리(1.0%)
 \rightarrow 실질 수익률이 1%

(1) 금리와 환율의 관계

조건	환율 영향
한국 금리 ↑ (미국 < 한국)	외국인 자금 유입 → 원화 강세 → 환율 하락 ☑(단, 금리 이외의 요인들과 시차를 고려해야 함)
미국 금리 ↑ (미국 > 한국)	달러 강세 → 원화 약세 → 환율 상승
금리 차 확대	자본이 높은 금리 국가로 이동 → 환율 방향성 형성

☑ 실제로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환율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는 자본 통제, 환율 제도, 정치 리스크 등 비이자율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.

→ 금리와 환율 관계는 교과서적으로는 맞지만, 실제로는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.
금리 인상 후에도 다른 경제 요인들(지정학적 리스크, 시장 심리, 경제 펀더멘털 등)이 더 큰 영향을 미치거나,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.

자본 이동은 주로 **실질금리(real interest rate)** 차이에 따라 발생하며, 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침
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면, 해당 통화 수요가 증가 → **통화 강세(환율 하락)**

(2) 국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금리 (명목 금리)

각국 중앙은행이 **통화정책** 수단으로 설정한 기준금리

- **출처:** 각국 중앙은행 공식 발표
- **용도:**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대응 정책을 비교할 때 사용
-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 설정함으로써 경기 과열 억제 / 경기 부양 등의 목적

[한미 금리 비교]

국가	중앙 은행	정책 금리	설명
KR 한국	한국은행 (BOK)	기준금리 (Base Rate)	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. 시중금리의 기준 역할
US 미국	연방준비제도 (Fed)	Federal Funds Target Rate	은행 간 초 단기 대출금리. FOMC에서 설정

5. 물가 / 국제수지·외환

(1) 소비자 물가지수 (CPI)

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·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**특정 기준년도와 비교해** 상대적인 변화율을 보여주는 지수형 데이터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CPI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OR]	↑ (상승)	물가 상승 → 인플레이션 발생 = 돈의 가치 하락 → 그럼 물가를 억제 해야함 → 금리 인상 → 외국인 자본 유입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	↓ (하락)	물가 하락 → 금리 인하 기대/실행 → 금리 매력도 감소 → 외국인 자본 유출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A]	↑ (상승)	미국 물가 상승 → 미국 금리 상승 → 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미국 물가 하락 → 미국 금리 인하 → 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
(2) 상품수지 (무역수지)

재화(상품)만 기준으로 한 수출입 차액 단위 : 백만달러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상품 수지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R]	↑ (상승)	외화 유입 ↑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	↓ (하락)	외화 유출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]	↑ (상승)	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
(4) 국제수지 中 경상수지 정리!

a. 경상수지 (Current Account) 란?

한 나라가 상품·서비스 거래, 해외 소득, 이전소득 등을 통해 외화를 벌거나 쓰는 흐름을 기록한 계정
→ 한 나라의 실물경제 활동에 따른 외화 수지를 나타낸다.

- 경상수지 흑자 = 외화를 많이 벌어들임 → 자국 통화 수요 증가 → 환율 하락 압력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경상 수지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R]	↑ (상승)	외화 유입 ↑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	↓ (하락)	외화 유출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]	↑ (상승)	미국 경제 신뢰도 향상 → 달러 수요 증가 → 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미국 경제 신뢰도 하락 → 달러 수요 감소 → 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
b. 경상수지 구성 4가지

① 상품수지 (Goods Balance, Trade Balance)

- 재화(물리적 상품)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 (자동차, 반도체, 원유 등)
- 흑자이면? 수출 > 수입 → 외화 벌어들임
- 적자이면? 수입 > 수출 → 외화 유출
- 예시
삼성이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 (외화 유입) → 상품수지 흑자
한국이 중동에서 원유 수입 (외화 유출) → 상품수지 악화

② 서비스수지 (Services Balance)

- 무형의 서비스 거래에 따른 수출입 차이
- 운송, 여행, 보험, 금융, 특허 등
- 흑자이면? 외국인 관광객 증가, 해외로 수출한 IT서비스 증가
- 적자이면? 해외 여행·유학 지출, 글로벌 플랫폼 사용료 지급

③ 본원소득수지 (Primary Income Balance)

- **해외 투자로 얻은 소득** 또는 지급한 소득
- 이자, 배당, 임금 등 → **돈이 돈을 번** 소득 흐름
- **흑자이면?**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배당·이자 수취
- **적자이면?**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뒤 배당·이자 지급
- **예시**
국민연금이 해외 채권에서 이자 수취 → 본원소득수지 흑자
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배당 지급 → 본원소득수지 적자

④ 이전소득수지 (Secondary Income Balance)

- 대가 없이 주고받는 **무상 이전 자금 흐름** → 순수 이전(transfers), **교환 없이** 외화가 오감
- 해외 송금, 국제 원조, UN 회비 등
- **흑자이면?** 해외에서 외화 송금 수령
- **적자이면?** 한국이 국제기구에 회비 납부
- **예시**
재외동포가 한국 가족에게 송금 → 이전소득수지 흑자
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 제공 → 이전소득수지 적자

6. 국민 소득 / 산업·고용

(1) 경제성장률

: 국내총생산(GDP)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→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냄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경제 성장률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R]	↑ (상승)	자본 유입 ↑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 - 외국인 투자 유입 - 자국 통화 신뢰 상승
	↓ (하락)	자본 유입 ↓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]	↑ (상승)	달러 자산 매력도 증가 → 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 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
(2) 국내총생산 (GDP)

일정 기간 내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·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 → 경제 규모 자체를 나타내는 절대 지표 → 단위 : 백만달러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국가	GDP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OR]	↑ (상승)	자본 유입 ↑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 - 수출 확대 가능성 증가는 외화 유입 증가로 이어짐
	↓ (하락)	자본 유입 ↓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A]	↑ (상승)	자본 유출 증가 → 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GDP gap	- 한국 GDP - 미국 GDP - 한국 경제 성장률 - 미국 경	- GDP gap > 0 = 한국 > 미국 → 환율 하락

	제 성장률	- GDP gap < 0 = 한국 < 미국 → 환율 상승
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3) 실업률

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의 비율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실업률 변동	영향 (한국)
한국 [KOR]	↑ (상승) 고용 둔화	금리 인하 기대 → 외국 자본 유출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 고용 호조	경기 회복 기대 → 외국 자본 유입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미국 [USA]	↑ (상승) 경기 둔화	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 - 기대 효과일 뿐 즉각 반영 아님
	↓ (하락) 경기 회복	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
(4) 인플레이션

- 소비자물가상승률(CPI Inflation)로 주로 측정
- 한 나라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비율 → 자국 통화의 구매력 감소 속도를 의미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영향 (한국)
한국 물가 상승	원화 구매력 하락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물가 상승	달러 구매력 하락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
- 장기적으로는 상대 물가수준이 환율을 결정 → 구매력평가설 **Purchasing Power Parity, PPP** 이론

(4)-1 구매력 평가설 (구매력 평가 이론)

- 장기적으로 환율은 두 국가 간의 물가 수준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
-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 또는 약한지를 양국의 상대적인 물가 수준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

[종류]

1.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(Absolute PPP)
: 한 시점에 두 나라의 동일 상품 가격은 환율을 통해 같아야 함 (Law of One Price 적용)
2.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(Relative PPP)
: 시간에 따라 물가 상승률 차이만큼 환율이 변동해야 함

[예시]

1. 절대적 PPP 예시

- 미국에서 햄버거 가격: 5 USD
- 한국에서 햄버거 가격: 6,500 KRW
- 절대 PPP 에 따르면 → 환율은 1 USD = 1,300 KRW 여야 함

2. 상대적 PPP 예시

- 한국 물가 상승률: 5%
- 미국 물가 상승률: 2%
- 상대 PPP 에 따르면 → 원화는 달러 대비 약 3% 평가절하(환율 상승)해야 함

[현실에서의 적용과 한계]

장점	한계
장기적으로 물가 차이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	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요인(금리 차이, 자본 이동)이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침
국제 가격 비교 및 환율 균형 수준 추정에 활용	운송비용, 관세, 비거래재(예: 서비스) 때문에 완벽한 PPP 는 성립하기 어려움

7. 국제 주요국 주가지수

- 주가지수(Stock Index)란 특정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수치
- 주가지수는 보통 다수의 주요 종목의 주가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
- 한국은행 API에서 제공하는 주가지수는 **2015년을 기준으로** 상대적인 변화율을 보여주는
지수형 데이터 (표준화되어 있어 단위 차이 없음)

계산 방식	설명
시가총액 가중 방식	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 (예: 코스피, S&P500)
단순 평균 방식	종목 수의 단순 평균 (예: 다우존스지수)

[각 나라별 주가지수]

국가	주가지수	설명
한국	코스피 (KOSPI)	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가중 평균 지수
미국	S&P 500	미국 대형주 500개 종목의 시가총액 가중 평균 지수
중국	상하이 종합지수	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가중 평균 지수

[환율과의 관계]

기준 국가	주가지수 변동	한국 입장
한국 [KOR]	↑ (상승)	외국인 주식 매수 → 원화 수요 ↑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	↓ (하락)	외국인 자금 유출 → 달러 수요 증가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미국 [USA]	↑ (상승)	미국 경기 회복 기대 → 달러 강세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	↓ (하락)	경기 둔화 우려 → 달러 약세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중국 [CHN]	↑ (상승)	중국 경기 회복 기대 → 한국 수출 증가 → 원화 수요 상승 → 환율 하락 (원화 강세)
	↓ (하락)	중국 경기 둔화 우려 → 한국 수출 하락 → 원화 수요 감소 → 환율 상승 (원화 약세)

8. 국제 상품 가격

(1) 국제 유가(Oil Price)

- 국제유가란, 국제 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단위당 가격
→ 보통 단위는 **달러/배럴 (USD per barrel)** , 1배럴 = 약 159리터

[종류]

코드명	기준유종	거래시장	특징
WTI	미국 서부텍사스유	뉴욕(NYMEX)	파생상품 거래 많음, 글로벌 기준
Brent	북해산 브렌트유	런던(ICE)	국제유가의 대표 지표
Dubai	중동산 두바이유	중동 → 아시아 시장	한국 등 아시아국의 실물 수입 기준유

[국제 유가와 환율의 관계]

국제 유가 변동	한국 입장
유가 상승 시 (원유 수입 비용 ↑)	달러 수요 ↑ → 무역수지 악화 → 환율 상승(원화 약세)
유가 하락 시	수입 부담 ↓ → 환율 하락(원화 강세)

(2) 에너지, 금속 원자재 관련

항목	단위	특징
천연가스	달러/MMBtu	국내 에너지 소비 중 10% 수준 - 1 MMBtu = 100 만 Btu - 1 Btu = 약 252 칼로리 = 물 1 파운드를 1°F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
철광석	달러/톤	철강과 다름 (철광석=원자재, 철강=가공제품)
구리	달러/톤	산업재 원자재로서 수입 비중 있음
알루미늄	달러/톤	산업재 원자재로서 수입 비중 있음

- 원자재 가격 상승 → 원자재 수입국(한국)에는 수입 물가 상승 → 무역수지 악화 → 환율 상승 요인
- 하지만, 수출 상품에 내재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 영향 중립 또는 보완 가능

9. 경제 심리 지수

(1) 개념 및 설명

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와 소비자동향지수(CSI)를 결합해 경기 인식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지표

- 제조업 BSI와 소비자 CSI를 가중평균
- 지수기준 100
 - 100 이상 : 장기 평균보다 긍정적
 - 100 미만 : 부정적 경기 인식
- 주기 : 월말 발표

[환율과의 관계]

변수 상승	경제 해석	환율 영향
경제심리지수 상승 (100 초과)	경제 낙관 심리 증가 → 소비·투자 증가 기대 → 외국 자본 유입 증가	원화 강세 → 환율 하락
경제심리지수 하락 (100 미만)	경제 비관 심리 증가 → 소비·투자 둔화 → 외국 자본 유출 우려	원화 약세 → 환율 상승

(2) 원계열 (Original Series)

통계청, 한국은행 등에서 수집한 원자료 그대로의 시계열 데이터

- 계절효과, 추세, 불규칙성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됨

(3) 순환변동치 (Cycle Component)

원계열에서 계절 요인과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후, 추세와 순환변동만 남긴 값

- 기적인 계절성 제거 → 경기의 순환적 흐름 파악 가능
- 일반적으로 원계열 → 계절조정 → 추세분해 후, 순환 요소만 분리

10. 정부 부채 비율 (GDP 대비)

(1) 개념 및 설명

정부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빌린 모든 부채의 총액이 그 해의 국내총생산(GDP)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를 백분율(%)로 나타낸 지표

-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경제 활동(GDP) 규모에 비해 정부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를 보여주는 비율
- 정부 부채 비율 (%) = (정부 총 부채 ÷ 명목 GDP) x 100

(2) 비율 수준 (OECD-선진국 기준)

- 낮음 (60% 미만): 정부 재정이 건전한 편. 재정 여력 풍부. 비기축 통화국 기준 안전선
- 보통 (60% ~ 90%): 중간 수준 (관리 가능)
- 높음 (90% 전후 및 그 이상):
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, 금리 > 성장률이면 위험
→ 매우 높은 수준. 재정적자·금리 상승 리스크 노출.
정부가 GDP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. 재정 건전성 우려 발생 가능

(3) 종류

1. General Government Debt

- 일반정부 부채
- 정부, 지방정부, 그리고 사회보장기금(예: 국민연금)까지 포괄한 전체 정부 부채
- OECD, IMF, 세계은행(World Bank) 등은 대개 General Government Debt을 기준으로 국가 비교
- 종합적인 부채 지표
- 포함 범위:
 - 정부 부채 (예: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)
 - 지방정부 부채 (예: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)
 - 사회보장기금 부채 (예: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공공기금이 운영하는 부채 포함)

2. Central Government Debt

- 중앙정부 부채
- 중앙정부(국가 수준)의 부채만 포함
- 포함 범위:
 - 기획재정부, 국세청, 국토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서 발생한 부채
 - 지방정부나 공공기금 부채는 제외

(4)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 기준: $r - g$ 조건

-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
"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(r)이 경제성장률(g) 보다 높으냐 낮으냐"에 따라 달라짐
- $r < g$ 이면 →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안정됨 → 부채 부담 증가 X
- $r > g$ 이면 → GDP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 → 지속 불가능

(5) 명목 vs 실질 부채 개념

- 부채는 보통 **명목 기준**으로 계산되지만,
- 경제성장이나 세수는 **실질(물가 반영 후)**로 성장 → 이 차이도 **부채 부담 추정**에 중요
-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명목 GDP가 커지면서 **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**도 있음
→ 단,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효과는 상쇄됨

11. 미국 주가 공포 지수(변동성 지수) - (Volatility Index)

(1) 개념 및 설명

- VIX는 시카고옵션거래소(CBOE)가 S&P 500 가격을 이용해 산출하는 '향후 30일간 시장이 얼마나 크게 변동할지에 대한 기대치'를 나타내는 지수
- '공포 지수(fear index)'라고 불리기도 하며, 값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뜻

(2) VIX의 측정 원리

- S&P500의 **내재변동성(implied volatility)**을 가중평균해 계산
- 산출된 내재변동성이 클수록 VIX가 높고, 작을수록 VIX가 낮음

(3) 활용 용도

I. 활용 시기

- **시장 불안 심화 시기**: 금융 위기(예: 2008년), 팬데믹 초기(2020년),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시 등

II. 활용 용도 : [투자·위험 관리]

1. **시장 심리 파악**: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 VIX 급등 → 매수 기회 포착 (역발상 지표로 사용)

- 무서움 지표 읽기

- a. VIX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건,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섭다고 표현하는 것.
- b. 비가 오겠다 싶을 때 우산이 비싸지는 것처럼,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주식을 팔면 주가가 하락한다.

- 기회 포착(역발상)

- a. 다들 너무 무서워서 팔 때, 나는 사자!
- b. VIX가 최고로 치솟아 주가가 '할인'상태 일 때, 일부러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

2. 포트폴리오 헤징 (portfolio hedging): VIX 선물·옵션 등을 통해 충격 대비

내 투자 묶음(portfolio, 여러 자산을 한데 담은 바구니)을 위험(가격 급변)에 대비해 미리 보호(hedge)하는 전략

○ ‘보험’ 들어 두기

-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 두는 것처럼, 갑자기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 VIX 관련 금융상품(선물·옵션)을 사 둔다.
-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, 이 ‘보험’ 덕분에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.

3. 단기 트레이딩 타이밍: 과도한 공포나 안도 국면에서의 단기 진입·청산 전략

○ 공포·안도 ‘파도 타기’

- 시장에 공포(파도)가 너무 커지면 그 순간에,
- **좁은 타이밍**에 주식을 사서 → 파도가 잠시 잔잔해진(안도) 순간에
- 다시 팔아 수익을 내는 식

(4) VIX와 원/달러 환율의 관계

• 위험회피 심리 강화

- VIX 상승 → 글로벌 투자자들의 **위험회피(risk-off)** 심리 강해짐
- 안전자산인 **미국 달러화 수요 증가** → 달러 강세
- 그 결과, 원/달러 환율이 상승(원화 약세) 경향

→ VIX가 오르면 원/달러 환율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.